

문학의 주체성과 그 구현에서 나서는 문제

고철훈*

【국문초록】

새 세기의 문학을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 새로운 민족문학으로 건설하는 데서 일어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주체성을 철저히 구현하는 것이다. 문학에서 주체성은 민족자주정신의 반영으로 이는 문학창작과 건설에서 자기 나라 인민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를 구현하며 자기 민족의 고유한 생활감정과 미감에 맞게 형상을 창조한다는 것을 말한다. 바로 여기에 문예학적 개념으로서의 주체성의 본질이 있다.

문학에서 주체성을 구현하는 목적은 문학이 자기 나라 혁명에 더 잘 복무하도록 하지는 데 있다. 문학은 자기 나라 혁명에 이바지할 때에만 생명력을 가진다. 문학창작과 건설에서 주체성을 고수하고 구현하기 위해서는 높은 민족적 자존심과 긍지를 가지고 자기의 것에 정통하며 자기 민족의 우수성을 적극 살리고 내세워야 한다.

우리 인민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은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으니 이를 구현하는 것이 문학의 주체성을 고수하기 위한 기본 열쇠이다. 문학 창작과 건설에서 주체성을 고수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족적 특성을 잘 살려 문학을 민족적 바탕에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우리 인민의 민족적 성격을 깊이 있게 그려내는 것과 함께 미풍양속과 세태풍속을 사실적으로 드러내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아울러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 있게 벌여야 한다.

주제어 문학, 주체성, 민족문학,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 민족자주정신

*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 소장

새 세기의 문학을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 새로운 민족문학으로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주체성을 철저히 구현하는 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동지께서는 주체성을 고수하고 구현하는 것이 우리의 사회주의 문학건설 위업수행에서 일관하게 견지하고 구현해나갈 근본 문제로 된다는 것을 밝히시고 주체성의 본질과 그 구현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명을 주셨다.

위대한 령도자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다.

‘문학에서 주체성은 민족자주정신의 반영이다.’(『주체문학론』20페이지)

문학에서 민족자주정신을 반영한다는 것은 문학창작과 건설에서 자기 나라 인민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를 구현하며 자기 민족의 고유한 생활감정과 미감에 맞게 형상을 창조한다는 것을 말한다. 바로 여기에 문예학적 개념으로서의 주체성의 본질이 있다.

주체성 혹은 주체란 표현은 남조선의 문예학계에서도 일부 쓰고 있다. 그 실례를 지난 세기 70 || 80년대에 활발히 벌어진 민족문학, 민족민중문학론 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염무웅은 평론 「력사의식과 문학」(『신동아』, 1974년 9월호)에서 ‘주체성이란 무엇인가. 우리 력사의 주인이 다름 아닌 바로 우리 민족이라는 관점에서 력사를 보고 현실을 보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백락청은 평론 「민족문학개념의 정립을 위하여」(『월간중앙』, 1974년 7월호)에서 민족문학의 개념을 고수하려면 그것을 요청하는 어떤 민족적현실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민족문학의 주체가 되는 민족이 우선 있어야 하고 동시에 그 민족으로서 가능한 온갖 문학 활동 가운데서 특히 그 민족의 주체적 생존과 인간적 발전이 요구하는 문학을 ‘민족문학’이라는 이름으로 구별시킬 필요가 현실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밖에도 성민엽은 『민중문학론』(문학과 지성사, 1984년)의 서론 「형성

과정속의 민중문학론」에서 ‘민중문학’이라는 개념은 주체적 현실에 의해 형성되어왔고 또 형성되어 가고 있는 전략적, 상대적 개념이다.’라고 하였다.

위의 실례들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론자들은 주체성 혹은 주체란 표현을 객체와 상반되는 개념으로서 주로는 민족문학이나 민중문학의 주체적담당자인 민족 또는 ‘민족구성원의 대다수를 이루는 민중’을 넘두에 두고 쓰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밝히신 문예학적 개념으로서의 주체성은 이러한 의미와는 전혀 다르며 매개 나라 민족문학을 자기 나라 인민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 자기 민족의 고유한 생활감정과 미감에 맞게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근본원칙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원래 문예학적 개념으로서의 주체성은 자주시대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민족문학을 자주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원칙적 요구로부터 산생하였다.

력사의 새 시대, 자주시대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문제를 자기의 신념에 따라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 것을 요구한다. 인민대중이 나라와 민족에 속하여 살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이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진행되는 것만큼 문학건설도 매개 민족국가단위로 진행된다. 따라서 문학창작과 건설에서 자기 나라 혁명의 리익과 자기 나라 인민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를 구현하며 자기 민족의 고유한 생활감정과 미감에 맞게 형상을 창조하는 것은 문학의 운명을 좌우하는 생명과도 같다.

문학에서 주체성을 구현하는 것은 인간을 그리며 인간에게 복무하는 문학자체의 인간학적인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수적인 요구이다. 문학은 자기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자기 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옹기 반영할 때에만 인간과 생활을 현실에서와 같이 진실하게 보여줄 수 있으며 인간을 존엄 있고 힘 있는 존재로 키우는데 참답게 이바지할 수 있다.

문학에서 주체성을 구현하는 것은 제국주의자들의 민족문화 말살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악랄해지고 있는 현 조건에서 더욱 절실히 문제로 제기된다.

현 시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은 제국주의자들과의 힘의 대결이고 사상과 의지의 대결이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 반동들은 한손에는 핵무기를 들고 다른 손에는 딸라 주머니를 흔들면서 민족의 자주적 발전을 위해 투쟁하는 나라들을 압살하기 위해 갖은 발악을 다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민족문화말살정책은 '세계화'의 간판 밑에 절정에 이르고 있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국경이 없는 자본이 세계를 지배하는 오늘'에 있어서 문학예술은 나라와 민족의 한계를 벗어난 '전 세계적인 것'으로 되어야 한다고 떠벌이면서 '세계주의문학예술', '전 인류적인 문학예술'에 대하여 요란하게 광고하고 있다.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매개 나라 문학예술에 고유한 민족성과 독자성을 거부함으로써 자주적 길로 나아가는 나라들의 민족문화 건설사업을 파탄시키려는 책동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자주적 정의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의 공격의 화살은 우리나라에 돌려지고 있다. 오만해질 대로 오만해진 미제는 우리 제도를 내 부로부터 와해시키려는 음흉한 목적 밑에 썩어빠진 부르주아 문학예술을 류포시키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하며 미쳐 날뛰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문학창작과 건설에서 주체성을 고수하는 문제는 제국주의자들의 민족문화말살 책동으로부터 주체의 사회주의문학을 지키느냐 마느냐 하는 심각한 반제계급투쟁으로 된다.

우리는 새 세기에 들어서서 더욱 교활해지고 음흉해진 제국주의자들의 민족문화말살 책동에 혁명적 경각성을 높이며 문학창작과 건설에서 주체성을 철저히 견지하고 구현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문학창작과 건설에서 주체성을 고수하고 올바르게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무

엇보다도 문학창조와 발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기 나라 혁명을 중심에 놓고 대하며 자기 나라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자기 식대로 풀어나가는 관점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문학에서 주체성을 구현하는 목적은 문학이 자기 나라 혁명에 더 잘 복무하도록 하자는데 있다. 문학은 자기 나라 혁명에 이바지할 때에만 생명력을 가진다. 주체성을 철저히 구현하는 것은 문학을 자기 나라 혁명에 적극 이바지하는 참다운 주체형의 문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체문학예술의 대전성기가 마련되게 된 것은 문학예술을 창조 발전시키는데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 문제들을 독자적인 주견을 가지고 우리 식대로 풀어나갔기 때문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문학예술혁명의 불길을 지펴주시고 혁명적 문학예술전통을 빛나게 계승 발전시켜 우리 식의 혁명소설과 혁명영화, '피바다' 식 가극과 '성황당'식 연극, 우리 식의 주체적인 창작지도체계와 창조체계를 마련해주시고 항일유격대식 창작기풍과 생활기풍이 나래 치도록 하심으로써 우리의 문학예술을 주체의 혈통만을 순결하게 이어받은 혁명적인 문학예술로 찬란히 개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여주셨다.

우리는 이처럼 남의 의사와 처방을 따르지 않고 오직 우리 식만을 확고히 견지하였기 때문에 이 땅위에 주체문학의 룡성번영기를 펼쳐놓을 수 있었다.

문학창작과 건설에서 주체성을 고수하고 구현하기 위해서는 또한 높은 민족적자존심과 긍지를 가지고 자기의 것에 정통하며 자기 민족의 우수성을 적극 살리고 내세워야 한다.

민족적자존심과 긍지는 민족애와 민족자주의식의 발현이다. 자기 민족이 남만 못지않다는 민족적자존심, 자기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의 감정과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발전시키려는 각오를 가져야 문학작품에 민족자주정신을 깊이 있게 구현할 수 있으며 사회주의문학을 승리로 건설하여 나갈 수 있다.

우리 인민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은 우리 ○○, 우리 당이 제일이고 우리 사상, 우리 제도가 제일이라는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이야말로 우리 인민의 민족적 존엄과 자존심의 원천이다. 그러므로 우리 문학에서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잘 구현하는 것은 문학의 주체성을 고수하기 위한 기본열쇠가 되고 있다.

민족의 우수성을 살리고 내세우는데서 민족문학예술유산을 옹계 계승·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민족의 선행세대들에 의하여 오랜 역사적 기간에 창조되고 전승되어 온 민족문학예술유산은 그 나라 인민의 문화적 재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민족문학예술유산을 계승하는데서 민족의 우수성을 부정하는 허무주의태도와 지난날의 것을 덮어주고, 되살리는 복고주의적 경향을 다같이 배격하고 민족적립장과 계급적 립장, 역사주의 원칙과 현대성의 원칙을 옹계 결합시켜 낡은 것, 사회주의에 맞지 않은 것은 버리고 진보적이고 인민적인 것을 내세우고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문학창작과 건설에서 주체성을 고수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족적 특성을 잘 살려 문학을 민족적 바탕에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문학에서 민족적 특성은 자기 나라 인민의 심리와 정서, 언어와 풍습을 비롯하여 생활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민족의 고유한 특징을 반영하는데서 나타난다. 자기 나라 인민의 생활과 사상 감정에 대한 구체적이며 생동한 형상적 재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문학의 민족적 특색을 살리는 것은 주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구로 나선다.

문학에서 민족적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우리 인민의 민족적 성격을 진실하고 깊이 있게 그려내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우리 민족은 오랜 역사를 가진 문명하고 슬기로운 민족이며 하나의 핏줄을 이어받은 단일민족이다.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강毅한 의지와 고상한 정신·도덕적 풍모를 온 세상에 과시하였다. 슬기롭고 용감하며 불의를 미워하고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며 도덕의리를 귀중히 여기는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성을 적극 살리는 것은 성격창조에서 제기되는 선차적요구이며 문학의 주체성을 살리기 위한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문학에서는 민족적 성격을 그리는데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민족의 고유한 성격적 특징을 잘 형상 하는 것과 함께 우리 인민이 지닌 애국애족의 리념을 잘 그리는데 각별한 관심을 돌리고 있다. 사람들이 자기 계급을 어떻게 대하며 계급의 한 성원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되지만 그보다 못지않게 민족의 한 성원으로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조선의 혁명가들은 티 없이 깨끗한 마음을 안고 조국의 광복과 자주위업 발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운 가장 열렬한 애국자들이었으며 조선 혁명이 개척되고 전진하여온 전 역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우리 인민의 헌신적 투쟁으로 일관되어있다. 우리 문학에서는 주체형의 인간이 지니고 있는 애국애족의 리념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그림으로써 성격창조에서 우리 인민이 지닌 고유한 민족적 특성을 잘 살리고 있다.

문학창작에서는 우리 인민이 지닌 민족적 성격과 함께 오랜 역사적 과정에 이루어지고 굳어진 미풍량속과 세태풍속을 실감 있게 그려야 하며 우리 인민의 비위와 정서에 맞는 새롭고 특색 있는 민족적 형식을 끊임없이 창조하여야 한다. 민족적 관습이 진하게 배어 있는 미풍량속이나 세태풍속에는 지난날 우리 인민의 아름답고 다양한 생활이 집중적으로 반영되어있다. 우리 문학에서는 우리 인민의 감정, 정서가 어려 있고 민족적 색채가 짙은 민족생활을 여러 가지 예술형식과 형상수단, 수법으로 우리 시대의 요구와 미감에 맞게 잘 그림으로써 문학을 민족적 바탕에서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문학창작과 건설에서 주체성을 고수하고 올바르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밖에도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

있게 벌여야 한다. 특히 자기 나라 민족문학의 주체성을 강화한다고 하여 자기의 것만 제일이라고 하면서 다른 나라의 민족문학을 부정하거나 배격하는 민족배타주의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문학창작에서 주체성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새 세기의 민족문학을 민족자주정신이 빛나는 예술적 정화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Literature Identity and Its Construction

Ko, Chól-Hun

The construction of new National Literature of Korea lies in how to represent the identity. The identity, based on the spirit of one nation, should be oriented to the people's innate feelings and artistic tastes. Accordingly, literature should support revolution and aims to represent the superiority of the people. In order to meet this requirement, literature advances to reveal the folk culture as well as to oppose to the old thoughts like Toadyism and Dogmatism.

Key Word

Literature, Identity, National Literature, Independent Spirits